

광주시·전남도, 수해현장 구호 등 총력 대응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속한 수해 현장 구호 등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28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호우특보 발효 즉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해 긴급 상황에 대처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무등산국립공원 2개 탐방로와 양동북개상가 하부주차장, 지하차도, 하부도로 등지의 출입을 통제했다. 피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배수펌프장 7개소 가동, 안전 안내문자 발송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광주지역에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185건을 파악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북구 석곡천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 복구와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장마철에 따른 잦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제방 유실 피해 지역에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댐포,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동원해 응급 복구를 진행하

고 있다. 또 제방 유실 응급 복구를 이날까지 완료하고 하천 순찰과 시설물 수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도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비상회의 개최를 지시한 데 이어, 함평 수난 실종자 수색 및 농경지 침수 피해 현장을 잇따라 찾아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폭우가 쏟아진 함평에선 일부 농경지

姜시장, 제방 유실 석곡천 방문 응급 복구·안전조치 등 지시
金지사, 함평 실종자 수색현장서 “인명피해 철저 대비” 당부

가 침수되고 마을 부녀회장 오모(67)씨가 얽다천 수문 관리를 위해 집을 나섰다 실종돼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광양·순천·무안 등 대피 5세대 5명, 나주·보성·고흥·곡성·여수·장성·함평 등 7개 시·군 농작물 침수 1천888ha, 시설하우스 침수 38ha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소방당국에선 가로수 정리·배수로 정비 등 106건의 현장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함평 수난 실종자 수색현장을 찾아 “지난밤 내린 집중호우에 도민 안전을 위해 배수문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수난 실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포인트 지점 등을 중심

으로 실종자 수색을 강화하는 등 수색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경지 등 피해 예상 지역에 전방위 비상점검 활동을 벌이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당분간 집중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명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근무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전남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수도권 일정을 소화한 김 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문규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이날 오전 폭우에 따른 피해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산사태 피해 우려지와 전국 체전 공사 현장, 노후 저수지, 각종 공사장, 취약계층 안전과 대피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수해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 복구,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광주·전남에 많은 비가 내린 28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방이 유실된 북구 석곡천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왼쪽).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평군 학교면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자 수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제공

전남도, 5개 기업 2조5천억 투자협약

서울서 투자유치설명회...신규 일자리 2천125개 기대

전남도는 28일 웨스턴조선서울호텔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한화 글로벌부문 등 5개 기업과 2조5천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연도군수, 김병윤 베스타스 부사장, 하은식 GE리뉴어블에너지 사장, 임효성 ㈜효성 상무, 노형성 일진전기 전무, 박상훈 HD현대일렉트릭 전무, 이성백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수석 부회장, 수도권 소재 기업과 협회 대표 1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투자협약, 전남의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소개 발표,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화 글로벌부문, GS바이오(주), ㈜장영, ㈜바르디앤디, ㈜포스코퓨처엠 등 5개 기업과 2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통해 2천125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글로벌부문은 여수 국가산단 일원 13만㎡에 연간 40만t 규모의 질산 공장을 건설하고 바이오·반도체 소재 및 탄소중립을 위한 암모니아·수소·C

CS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GS바이오는 2024년까지 여수 국가산단에 바이오디젤 플랜트를 증설할 예정이다.

장영은 영광에 2029년까지 쌀가루 및 떡 제조 관련 공장을 신설하고, 바르디앤디는 2027년까지 호텔&리조트를 건립하며,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에서 이차전지용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투자협약에 이어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소개 발표를 통해 주력 사업인 첨단소재,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반도체 등 전남의 역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강점과 투자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선 분산형 에너지 시대에 대비, 미래형 신기술로 주목받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MG) 사업 추진 계획과, 에너지밸리 추진 현황 및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전남도 대도약’에 활력을 더할 투자유치 가속화 다짐 포커스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 분야 맞춤형 산업유치를 확보하고 남해안 역사문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루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산업 대전환의 시대 최적의 발전 여건을 갖춘 기회와 희망의 땅, 전남에서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道, 군공항 이전 정보 제공·공론화 속도

남악서 두 번째 강연회...무안군민 300여명 참석

전남도는 28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강연회’를 열어 군공항 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달 8일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무안군민 300여 명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강연자로 나선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는 ‘무안 국제공항 국내선 통합 및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교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전남도, 광주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합의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사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이전 후보지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설득에 전남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결정은 지역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나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자체가 없다”며 “도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객관적 정보 전달 기회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공항 이전을 정부기관 이전이나 국방부 주요 시설 유치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혐오시설로 낙인찍혔던 교도소와 방파장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치 시설로 재인식한 강원 태백과 전북 남원, 경북 경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정 교수는 “군부대는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가족 이주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한 지역 교육 및 문화 공동체 과급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강연회에서 확인한 높은 관심은 올바른 결정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공론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7개 AI 기업과 업무협약...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광주시는 28일 시청에서 아리사코리아·피피텍코리아·카비·씨에이에스·젠데이터·메사쿠어컴퍼니·어노테이션에이아이 등 7개 인공지능(AI) 기업과

157-16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들은 법인 이전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이결아리사코리아 대표이사, 임훈 피피텍코리아 대표이사, 이은수 카비 대표이사, 전영하 씨에이에스 대표이사, 함민혁 젠데이터 대표이사, 이지훈 메사쿠

어컴퍼니 대표이사, 윤동국 어노테이션에이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선강기자

아마가세 / 후쿠오카 / 기타큐슈 / 삿푸

일본 규슈 골프여행 2박 3일(54H)

8명 이상 출발 가능 | 항공은 에어부산 OR 진에어(부산/인천 출발)

899,000원 부터~ (기사&가이드 팀 4만원 별도)

무안 출발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양국 정부 인허가 조건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가격이 다르오니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 이사 **최승환**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 제 100-000-2023 0227 3586호

◆ 공동조건: 여행경비는 1인 기준, 1억원 여행자보험가입, 골프54H, 전 일정 식사 비용(중식 제외), 숙박비 ◆ 최소출발인원: 8명 ◆ 사용골프장: 삿푸노리 G.C, 아마가세 C.C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불포함 사항: 국내수송, 기사 가이드팀별도, 락커비, 클럽중식비, 여권, 개인경비, 골프캐디 ◆ 상의요금은 날짜 및 인원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용호텔: 아마가세 유리 료칸(天瀬瀨里旅館)

조이투어 TeL.1522-1901